

“입주민 만족 최우선”... 지역주택조합 성공 견인

북구 신용동 현대지역주택조합

‘힐스테이트 더 리버’ 연말 준공 사업초기 토지·금융문제 등 해결 프리미엄 특화... 투자가치 제고 율하반기 206세대 일반분양 주목



광주 북구 신용동 현대지역주택조합은 오는 12월말 첨단지구 신용동 일원에 ‘힐스테이트 신용 더 리버’를 준공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힐스테이트 신용 더 리버’ 조감도.

현대지역주택조합 제공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 시장의 새 트렌드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가운데 광주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고급화’를 전면에 내세운 아파트 공급을 앞두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북구 신용동 현대지역주택조합은 올해 12월말 첨단지구 중심지인 신용동 일원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신용 더 리버’를 준공한다고 14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신용 더 리버’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특성상 저렴한 공급가에 뛰어난 입지를 모두 갖추고 있는 데다 일반 고급형 아파트를 능가하는 프리미엄급 시설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15년 조합 설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 현대지역주택조합은 주택조합사업의 최대 난관으로 꼽히는 토지 확보와 금융 문제, 조합원 모집 등

을 사업 초기 단계에서 일찌감치 해결하고 착공에 들어가는 등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주택조합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조합원 이익과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최우선으로 두고, 투명한 사업 운영과 조합-현대건설 간 상생 협력을 통해 추가분담금 부담 해소와 고급화에 주력해 조합원들의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등 지역주택조합의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조합은 프리미엄급 아파트 건립을 위해

주차장을 모두 지하화하고, 지상 공간에 산책로와 놀이, 휴식 공간 등을 크게 늘렸다. 주거동 바닥 면적이 단지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건폐율도 12%대로 낮춰 동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했으며, 아파트 내부마감재·조경·외벽·경관조명·지하주차장·엘리베이터 공용부·단지내 문주·동 출입구 등을 특화해 차별성을 뒀다. 이밖에 아파트 옥상에 친환경 태양광 패널을 설치, 향후 입주민들의 공동관리비 부담을 덜도록 했다.

백성기 신용동 현대지역주택조합장은

“추가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을 만들고 일반분양자 합리적인 분양가를 제시해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 모두에게 더욱 쾌적한 단지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신용 더 리버’는 지하 2층~지상 29층, 19개 동, 총 1647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다. 이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전용면적 74~135㎡ 206세대는 일반에 공급된다. 현재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며 올해 5월 말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12월 말 준공할 예정이다. 일반분양은 율하반기 중 진행된다.

단지는 도보권 내에 광주도시철도 2호선 첨단2지구역이 개통 예정이고, 첨단3지구 개발과 교통, 교육, 편의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밀집해 있는 등 개발 호재로 미래 투자가치가 높다. 단지 북측에 위치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집적단지 조성 계획이 확정됐다.

신용교차로와 인접해 있어 첨단지구 및 도심으로의 접근이 수월하고 광주제2순환도로와 동림IC, 산월IC를 통해 호남고속도로, 무안~광주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진입도 편리하다.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춰져 있다. 단지 반경 1.5km 내에 롯데마트·CGV·메가박스·광주우편집중국·광주보병병원 등이 위치해 있고 용두초·신용중·용두중·지산중·빛고을고 등 초·중·고교도 가깝다.

단지 양 옆으로는 영산강과 삼각산이 자리하고 있고, 첨단생활체육공원·첨단근린공원·쌍암공원·양산호수공원 등 근린공원이 다수 조성돼 있어 쾌적한 주거 생활도 가능하다.

브랜드 프리미엄도 강점으로 꼽힌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는 한국기업평가연구소가 매달 실시하는 아파트 브랜드평판 조사에서 19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또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2019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하는 등 조경 디자인 우수성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백성기 조합장은 “조합과 현대건설 간 협력으로 성실과 완벽을 추구해 준공까지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1647세대 대단지의 고급화된 프리미엄 아파트 건립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광주은행 ‘행운적금 우대금리 이벤트’ 연장

9월3일까지 진행

광주은행은 ‘행운적금’에 대한 고객의 성원에 힘입어 기존에 진행했던 연 10%p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오는 9월 3일까지 연장해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출시해 2개월만에 2만좌를 돌파하는 등 인기를 얻은 ‘행운적금’은 영업점 방문 없이도 광주은행 개인뱅킹 앱(APP) 또는 모바일웹뱅킹을 이용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비대면 전용 상품으로, 매주 월요일 6개 임의 숫자 조합으로 이뤄진 행운번호를 배정하고, 배정된 행운번호를 대상으로 금요일에 추첨을 해 당첨된 계좌에 연 1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행운번호 추첨에 당첨됐을 경우 1년제 정액적립식에 가입했을 경우, 연 13.7% (자유적립식 연 13.4%)의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고, 더불어 행운번호를 추첨하는 재미 요소가 더해지며 고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광주은행은 추첨을 통해 연 1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FUN & 행운 우대금리 이벤트’를 당초 이달 12일까지만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고객들의 관심과 성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2차 이벤트를 실시해 9월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벤트 방식은 1차 이벤트 내용과 동일하게 매주 월요일 6개 임의 숫자 조합으로 이뤄진 행운번호를 배정하고, 배정된 행운번호를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에 추첨을 해 당첨된 계좌에 연 1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오는 9월 8일까지 총 250개의 당첨계좌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와 스마트뱅킹(APP), 영업점,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난 1월 지역 제조업 생산 감소... 취업자는 증가

한은 지역본부 실물경제 동향

지난 1월 광주지역 취업자 수는 증가폭이 확대되고 소매판매 및 수출은 증가로 전환했으나 제조업 생산은 감소세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은 취업자 수가 증가세를 지속하고 소매판매는 증가로 전환했으나, 제조업 생산 및 수출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최근 광주·전남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제조업 생산은 광주와 전남 모두 감소했다.

광주지역(-1.6%, 전년동월대비 기준, 이하 동일)은 전기장비,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전남지역(-10.5%)은 화학제품, 1차금속 등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광주(1.7%)와 전남(3.0%) 모두 증가했으며, 승용차 신규등록대수도 광주(20.7%)와 전남(15.3%) 모두 늘었다.

지난 1월 수출의 경우 광주(2.0%)는 증가, 전남(-12.5%)은 감소했으며, 수입 역시 광주(0.9%)는 증가, 전남(-3.7%)은 감소했다.

2월 소비자물가는 광주(5.1%)와 전남(4.9%) 모두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난 1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광주(2만3000명)와 전남(1만6000명) 모두 증가했다. 실업률은 광주지역의 경우 2.6%로 전년동월 대비 1.6%p 하락했고, 전남지역은 4.2%로 0.4%p 상승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신세계, 직경매 ‘프리미엄 한우’ 선보인다

‘신세계 암소 한우’ 론칭 차별화로 고객만족 제고

업계 최초로 직경매 한우를 선보인 신세계백화점이 자체 한우 브랜드 ‘신세계 암소 한우’를 론칭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10일부터 자체 브랜드의 프리미엄 한우를 고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신세계는 지난 2021년부터 축산 바이어가 경매에 직접 참여, 매달 40두씩 한우를 매입하고 있다. 이는 신세계가 직접 매입하는 물량의 25% 수준으로 고품질,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달 완판 행진을 이어가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세계 직경매 한우는 10여년 경력의 축산 바이어가 매매참가인 자격증을 획득, 충북 음성 한우 공판장에서 아침 일찍 당일 나온 한우 리스트를 미리 확인한 뒤 우수 한우만을 선별해 선보인다.

직경매 한우를 통해 상품력을 검증받은 신세계는 전문 한우 브랜드를 론칭하고 차별화된 상품과 합리적인 가격을 앞세워 한우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먼저 부드러운 육질과 풍미를 갖고 있지만, 임신과 출산 등으로 동일 등급 내에



광주신세계는 신세계백화점이 자체 한우 브랜드 ‘신세계 암소 한우’를 론칭함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프리미엄 한우를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신세계 제공

서도 품질 편차가 큰 암소 한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직경매 한우 운영·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엄격한 자체 품질 기준을 수립했다.

실제로 신세계가 지난 2년간 직경매 한우를 운영한 결과 1등급, 마블링이 적은 담백한 고기를 고객들이 가장 선호함에 따라 60개월 이하의 한우 중 출산을 4번 이하로 한 암소들을 선별, 암소의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지방 비율이 높아 육질의

담백함이 떨어지는 만큼 로열 사이즈로 통하는 320kg~400kg 내외의 개체만을 취급하기로 했다.

신세계는 자체 암소 한우 브랜드 론칭을 기념해 매달 신세계 암소 한우 입고 날 ‘소 잡는 날’, ‘한우데이’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암소 한우에 이어 돼지고기 자체 브랜드도 마련해 품질 경쟁력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곽지혜 기자

조달청 ‘新성장 혁신제품 R&D 사업’ 첫 공모

6개 과제 32억원 지원

조달청이 혁신조달 분야를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사업에 처음으로 나선다.

14일 조달청은 내달 12일까지 한 달간 공공구매와 연계해 ‘新성장·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수요 기반 혁신제품 연구개발사업’ 과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개발 대상은 시범구매연계형 2개 과제(2년, 과제당 10억원)와 스케일

업(Scale-Up)형 4개 과제(1년, 과제당 3억원)이며, 총 지원규모는 32억원이다.

먼저 시범구매연계형은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공공기관으로부터 제안받은 총 114개의 과제 중 공모·심사를 거쳐 최종 2개 과제를 선정하고 혁신제품 개발과 시범구매를 지원한다.

스케일업형은 조달청이 지정한 혁신제품(511개 중 4개 대상)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해 기술·성능 향상과 국

내·외 판로 확대를 촉진한다. 이는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제품 고도화를 통해 EU의 의료기기법(MDR)과 같이 국내 기업의 수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해외 규제 문제를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개발 사업의 상세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pps.go.kr), 혁신장터(ppi.g2b.go.kr), 법무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결과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4월 중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곽지혜 기자